

EBU, 국내 지상파 방송사 방문 및 KOBETA와 MOU 체결

이진범 방송과기술 기자



유럽방송연합(EBU, Europe Broadcasting Union)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 방문단이 지난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간 국내 지상파 방송사와 가전사 등을 방문하고,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KOBETA)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곤 베르하렌(Egon Verharen) 회장(Chairman of EBU Technical Committee)을 비롯한 10명의 EBU 방문단은 한국의 UHD 실험방송 및 발전 현황과 차세대 방송기술 공유 등을 위한 것으로 국내 지상파 방송사인 KBS, MBC, SBS를 방문하여 미래 방송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각사의 스튜디오, UHD 편집실, NPS 실 등을 견학했고, 한국의 방송 현황과 주파수 현황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EBU와 국내 방송사 간 기술교류 확대 및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사이먼 펠 EBU TC 기술국장은 각사를 방문해 EBU에 대해, 현재 유럽에서 TV 및 라디오 기술을 선도하고 있으며, BBC, RAI 등의 R&D 센터가 있고, EBU TC의 기술혁신국(Technology & Innovation Department)은 미래 기술 개발과 표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EBU의 현재 주요 관심사로는 제작과 유통으로, 많은 기술 표준 및 문서를 발표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EBU의 UHD 전략에 대해서는 △차세대 TV 시스템으로서 확실한 가치를 시청자에게 부여하기 위해 워크플로우 시작과 끝을 규정하는 표준 제정 △새로운 형태의 통합 제작 워크플로우를 통해 다양한 기기 간 유통에 대한 효율적 대응 △전체 네트워크 방송 인프라와 품질 관리 위한 표준 및 미디어 제작 구조 정의 △파일 기반 환경에서 품질 관리와 자동화 위한 기술 제안 등을 목표로 하며, EBU의 UHD 핵심 기술로는 화면 픽셀 증가로 인한 4K 영상 구현과 HDR, HFR, BT.2020을 만족하는 보다 생동감 있는 4K 영상 구현을 염두 해 두고 있다고 전달했다.



UHD 편집실, 스튜디오 등 MBC 방문



제작 스튜디오 등 SBS 방문



KBS 기술연구소, 제1방송 스튜디오, 미디어 네트워크 센터 등 KBS 방문

한국의 방송 환경 및 현황에 대한 이해를 위해 MBC, SBS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UHD TV 기술과 콘텐츠, 전송 및 오디오 등 UHD 기술에 대한 논의가 중점을 이루었고, 이밖에도 하이브리드 방송, 모바일 방송, 4G 방송, 700MHz 주파수와 WRC 진행 예상, OTT에 대한 각국의 현황이 거론되었다. KBS와의 회의에서는 KBS 기술연구소의 연구 성과(UHDTV 코덱개발 및 실험방송, 스마트 DMB, 통합축정시스템 및 MIDAS, 듀얼스트림 3DTV, 클로즈드 캡션기술, 세컨드스크린 등)가 공유되었고, 700MHz에 대한 양국의 입장 및 진행 경과, 현황과 기술 표준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TTA를 거치지 않고, 방송사 주도로 독립적인 표준 단체를 만들어 국립전파연구원(RRA)에 직접 기술 표준을 제시하는 방안에 대해 EBU 측은 “지상파방송은 항상 UHD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 단체를 통한 표준화는 충분히 가능하고 전략적으로 좋은 시도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KOBETA의 사업 성과 발표



양해각서를 체결한 EBU와 KOBETA

한편 EBU는 이번 방문에 있어 주선 역할을 한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와 방송기술 교육 및 협력 촉진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방송기술 정보 교류 △각 기관 주최 연례국제회의의 연사 교류 및 기술적 협력 후원 △공동 연구 프로젝트 실시 △방송의 미래전략 공유 등을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이후삼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회장과 사이먼 펠 EBU TC 기술국장은 “두 조직은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따라 협력 촉진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구체적 행동을 수행하기 위해 조직 간 상호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결의했다. 